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9호 [투계 제2717호]

주체 111
(2022)년 9월
24일
토요일
음력 8월 29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고 박용일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용일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화환을 보내시였다.

국가의 부흥발전과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 헌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신 화환이 19일 고인의 령전에 진정되였다.

박용일동지는 열렬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고 우리

본사기자

김일성주석의 국가건설업적을

여러 나라 인사들 격찬

탁월한 국가건설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자주의 강국,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우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진보적인 류의 다함없는 경모심은 공화국창건 74돐을 맞으며 여러 나라 인사들이 보내어온 축전과 축하편지마다에 뜨겁게 어러였다.
체스요공산당-21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김일성주석께서는 혁명의 기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공화국을

조선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발전된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시였다고 지적하였다.
슬로벤스요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김일성주석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된 때로부터 행복한 사회주의미래를 건설하여왔다고 강조하였다.
에티오피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74년

력사는 나라와 인민을 위해 고귀한 생애를 바치신 김일성주석의 업적과 잇닿아 있다고 격찬하였다.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 조 책임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김일성주석께서 조선인민에게 안겨주신 가장 훌륭하고 귀중하며 위대한 선물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에

본사기자

내 나라의 하늘은 푸르고 인민의 마음은 즐겁다

풍요한 가을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흥겹게 하여주는 이 계절에 뜻깊은 공화국창건 74돐을 크나큰 환희속에 맞이한 사회주의조선! 지금도 축포탄들이 려이어 터져올라 밤하늘에 황홀하게 뿌려지며 일만경을 펼치던 경축의 그밤을 잊을수 없다.
밤하늘가에 램홍색국기를 휘날리던 항공록전병의 기백 있는 강하기고, 위대한 조국에 펼친 능란한 기교비행, 노래 《우리의 국기》의 송엄한 선율속에 펼칠 나뭇기린 찬란한 공화국기, 아름답고 희한한 축묘야경,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로 거연히 서있는 만수대의사당을 배경으로 성황리에 진행된 대공연...
누가 밤하늘을 감감하다고 했는가. 경축의 그밤 9월의 하늘가는 그야말로 눈부시도록 환하고 아름다웠다.
그 언제 어디서 보아도 맑고 푸른 공화국의 하늘!
그래서 사람들모두가 조용히 눈을 감아도 푸른빛 어리고 꿈에도 보이는 내 나라의 맑은 하늘이라고 그러도 절절히 노래하는 애인가.
끝없이 높고 넓은 공화국의 하늘은 인민의 존엄과 행복의 높이이고 넓이이다.
오늘날 세계의 정상에 우뚝 솟아오른 공화국과 더불어 이 나라 인민은 반만년력사에 처음으로 강국의 인민으로 존엄떨치고있다.
공화국의 인민들처럼 가장

값높은 존엄을 지니고 사는 인민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있는가.
인간의 존엄은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지켜지는것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착취받고 억압받던 수난자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던 이 나라 인민이었다.
일제의 발골밑에서 울밑에 선 봉선화처럼 시들어가던 이 나라 인민들에게 진정한 조국을 찾아주시고 자주독립 국가의 당당한 새 주인들로 내세워주시분은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되새겨볼수록 가슴뜨겁다. 세상에 인민대중처럼 전지전능하고 위력한 힘을 가진 존재는 없다고. 그래서 이민위천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있다고 하시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새 조국건설도, 것처럼 가렐쳐졌던 조국해방전쟁도,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도 승리에로 이끄신 어버이수령님.
그 나날 공화국인민들은 세인이 격찬하는 영웅인민으로 자라났다.
나라앞에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키워주신 영웅인민을 자주적군위병으로 더 굳세게 내세워주시기 위하여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계앞에 뒤편이 내세워주고 지켜주시신 인민의 존엄을 세계

만방에 더 높이 떨쳐주시려고 위민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진정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어 난생처음 땅의 주인으로, 공장의 주인으로 되어 뜨거운 눈물을 쏟던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가장 70여년세월 공화국인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은 인민으로 참된 삶을 누리고있다.
이 땅에선 인민의 리익이 언제나 첫자리에 놓이고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는 것이 제일가는 중대사로 되고있다.
햇빛밝은 이 하늘아래선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의 얼굴에도 한결 그늘을 찾아볼수 없다. 나라의 곳곳에 일떠선 육아원과 교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에서 부모없는 아이들이 고아의 설움을 모르고 세상에 부럽없이 자라나고있고 경치좋은 곳에 일떠선 궁궐같은 양로원들에서는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이 끝없는 행복을 노래하며 여생을 즐겁게 보내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온 나라가 서로 돕고 이끌며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산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인민이 존재한다.
그러나 나라의 주인이 되어 가장 보람찬 삶을 누리는 존엄높고 행복한 인민은 오직 공화국인민밖에 없다. 그 인민의 존엄과 긍지, 자부심이 하늘에 닿았다.
하기에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은혜로운 태양이 찬란히 빛나는 내 나라의 정든 하늘을 안고 살리라고 노래하고있는것이다.
가없이 맑고 푸른 공화국의 하늘은 자위의 억센 힘으로 하여 언제나 푸른빛 잃지 않는다.
힘이 약하면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간섭, 침략을 면할수 없고 시련과 재난의 검은 구름으로 푸른빛을 잃은 하늘아래서 인민은 크나큰 불행에 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제날 국력이 약해 식민지의 영원한 안전과 만년대계의 미래까지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장치가 갖추어지는 또 하나의 중대한 역사적업적이 달성되었다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정녕 눈물겹게 어려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실사무물 땅이 없으면 서서 죽더라도, 말라죽더라도 지켜야 하는것이 존엄이라는 철의 의지를 안으시고 부국강병의 세기적대업설현에 결연히 나서시였던 잊지 못할 날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종종 첩첩 막아서는 천만시련을 뚫고헤치며 가고 또 가신 회생적인 헌신의 그 나날들이 있었기에 공화국은 자주의 강국, 정의의 강국으로 세계에 우뚝 솟아오를수 있었다.
이제는 지구상 그 어떤 적대세력도 이 땅, 이 하늘을 감히 넘보지 못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억척으로 버려주신 자위의

이 없었다면 이 나라의 하늘은 벌써 침략의 검은구름에 의해 자기의 푸른빛을 잃고 말았을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창건 74돐을 앞두고 소집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전제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국가핵무력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한것은 국가방위수단으로서 전능적력을 법적으로 가지게 되었음을 내외에 선포한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고, 이로써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안전과 만년대계의 미래까지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장치가 갖추어지는 또 하나의 중대한 역사적업적이 달성되었다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정녕 눈물겹게 어려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실사무물 땅이 없으면 서서 죽더라도, 말라죽더라도 지켜야 하는것이 존엄이라는 철의 의지를 안으시고 부국강병의 세기적대업설현에 결연히 나서시였던 잊지 못할 날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종종 첩첩 막아서는 천만시련을 뚫고헤치며 가고 또 가신 회생적인 헌신의 그 나날들이 있었기에 공화국은 자주의 강국, 정의의 강국으로 세계에 우뚝 솟아오를수 있었다.
이제는 지구상 그 어떤 적대세력도 이 땅, 이 하늘을 감히 넘보지 못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억척으로 버려주신 자위의

억센 힘이 있기에 이 땅우엔 영원한 평화의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있다.
온 나라 인민들의 맑고 찬란한 미래가 비껴 더없이 맑고 푸른 내 나라의 하늘이다.
공화국의 70여년령정을 돌이켜볼수록 끝없는 공기로 가슴부풀고 더욱 휘황찬란할 미래를 앞당겨올 맹세로 심장이 세차게 뛴어번진다.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체 인민이 먹고 입고 쓰고 걸을모르며 무탈하여 편안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 누구나 덕과 정으로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공산주의적미덕과 미풍이 발휘되는 인민의 사회, 사회주의강국을 이 하늘아래 일떠세우시려 오늘도 끝없는 사색과 로고를 바쳐가신다.
지금도 사람들 누구나 잊지 못하며 전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언제인가 떠나면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수도의 불빛 밝은 밤거리에서 인민들이 부르는 행복의 노래소리를 들으시게 되시였다.

《나의 노래선봉에 자신의 심중도 없어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참 좋은 노래라고, 저 노래소리를 들으니 노래가 우리 인민들의 실생활로, 현실로 되게 하기 위해 내가 더 고생하고 헌신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가다듬게 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또 언제인가는 자신께서는 늘 수령님과 장군님의 념민대로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세상에서 제일 으뜸가는 강국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있다고, 우리 나라를 세계의 상상봉에 올려세우는것이 자신의 결심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를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울수만 있다면 한몸이 실사 한알의 모래알이 되어 후대들이 걸어갈 길에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런분을 어버이로, 수령으로 높이 모셨기에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온 나라 가정엔 언제나 평온과 웃음이 깃들고 사람들은 모든 꿈이 이루어질 찬란한 미래를 굳게 확신하며 사회주의강국의 명마루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것 아니겠는가.
인간은 미래에 산다. 미래가 없는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것인가.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력사로 맑고 푸르게 펼쳐진 하늘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로 더욱 높고 푸르러졌으며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 령도아래 더욱더욱 맑

고 푸르게 되였다.
그 하늘아래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고있다.
얼마전에는 송화거리와 경류동에 넘쳐나던 행복넘친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머지않은 앞날에 화성지구와 량포 은실농장, 곳곳에 일떠서는 행복의 별천지들에서 터져나올것이다.
참으로 더욱 휘황찬란할 래일을 그려볼수록 가슴은 더욱 부풀어오른다.
그 마음을 담아서 내 조국의 하늘은 그토록 맑고 푸른것 아니겠는가.
이 나라 모든이들의 찬란한 미래가 비껴여 끝없이 맑고 푸른 내 나라의 하늘!
한없이 맑고 푸른 내 나라의 하늘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태양의 미소가 비껴있다. 그의 따사로운 사랑의 손길이 해살처럼 온 나라 인민을 품어안는다.
인민을 위한 세상, 인민을 지켜주는 세상, 인민의 밝은 미래를 기약해주는 세상.
그래서 이 나라의 하늘은 그토록 맑고 푸르고 인민의 마음은 한없이 즐거울것이다.
온 나라 인민들이 우러러 따르고 만민이 칭송하는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공화국의 하늘은 나날이 더 맑고 푸를것이며 이 하늘아래서 인민은 길이길이 만복을 누리갈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애국자의 대부대를 키운 위대한 품

공화국은 무엇으로 강국가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설명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애국자에 대한 이야기로 이 나라의 강대함을 말하려고 한다.

지금도 사람들은 공화국창건 74돐을 뜻깊게 경축하던 그밤을 잊지 못하고 있다.

조국청사에 금문자로 아로 새겨진 력사의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국가의 부강발전에 공헌한 남다른 자량과 긍지를 안고 공화국창건 경축행사에 참가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에게 우리 당과 정부는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성실하게 바쳐가는 근로인민의 애국의 구슬땀과 순결한 량심을 천만금보다 더 귀중하게 여긴다고 하시면서 향유의 권리보다 공민적의무를 앞세우고 나라의 큰 짐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고심하고 분투하는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인민의 대표자,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향유의 권리보다 공민적의

무를 앞에 놓는 사람들! 나라의 큰 짐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고심하고 분투하는 사람들!

진정한 인민의 대표자, 참된 애국자!

지난 8월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에 공헌한 방역 및 보건부문 일군들과 과학자들을 만나시고 축하해주시는 뜻깊은 자리에서 그들을 우리 시대의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참된 애국자로 값높이 내세워준 사람들이 어찌 이들을 뿐이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것을 소중히 여기고 빛내이기 위해 애쓰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만나시어서도, 오랜 기간 군사복무를 하고도 몇년씩 제대를 미루어가며 복무의 자욱을 새겨 온 인민들을 만나시어서도 그들의 애국심을 소중하게 여겨주시며 참된 애국자로 영광의 단상에 내세워주시었다.

공화국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절세위인의 평도를 받들어 불리는 실상을 어머니조

국에 바치는 이런 애국자들이 찾아볼 수 있다.

그들중에는 인생의 로년기에도 수령의 애국유산을 지키는것보다 더 영예로운 순회길을 달려 수백만여m에 달하는 천을 짜고도 고마운 어머니당에 일로밖에는 보답할것이 없어서 심중을 리놓는 직포공도 있다. 또한 나는 가도 초소는 남아있다고 생각하며 누구나 선뜻 서기 주저하는 혈치 않은 일터에 자기의 네 자식을 세울것을 결심한 어느한 위생시설수리공도 있고 한생애 천길막장에서 탄을 캐면서도 태양같이 환하신 원수님의 미소를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살기에 땅속에서도 어둠을 모른다 하고 하는 평범한 탄부들도 있다.

세상을 둘러보면 어느 나라나 애국에 대해 나름대로 말한다. 그러나 공화국인민들처럼 리

없이 깨끗한 량심과 성실한 믿음에 가장 큰 행복의 무게를 실으며 맑은 일터에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는 헌신적이며 애국적인 인민은 없다.

공화국인민이 지닌 애국심은 평온한 날보다 어려운 날, 조국앞에 시련이 닥쳐왔을 때 더욱 뚝뚝이 흐르며 열렬하고 순결한 마음이다.

돌이켜보면 랑색공화국기가 처음으로 창공에 휘날린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장 70여년세월 얼마나 많고 많은 나라의 언덕들을 넘어 온 이 나라 인민인가.

새 조국건설,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 건설, 고난의 행군, 강행군... 이 나날 애국자의 자들의 국악무도반 반공화국대결소동을 짓부셔야 했고 련이어 걸쳐드는 자연재해도 이겨내야 했다. 최근년간에는 악성전염병으로 인한 방역전쟁까지 겪었다.

남들 같으면 얼얼번도 더 쓰러졌을 그야말로 증증첩첩의 시련과 난관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공화국은 단 한번의 동요와 주저, 답보

와 후퇴도 없이 오직 전진과 승리의 력사만을 아로새겨왔다.

그 나날 얼마나 많은 애국자들의 피와 땀이 이 땅을 적시었는가.

부강한 새 조국건설에 펼쳐 나설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나라에 애국미를 심참으로 바친 재령나무리벌의 김재원농민을 비롯한 애국농민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해 피뎠는 가슴으로 적의 화점을 막고 육탄이 되어 적방포를 맞받아 나간 유영무명의 용사들과 단 4문의 포로 적의 5만대군과 맞서싸운 열미도해안포병들, 전화의 불비속에서도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굳은 신념을 안고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굴복없이 투쟁한 군자리와 락원의 로동계급, 전후복구건설시기 강재 1만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수 있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호소를 피뎠는 심장에 새겨안고 6만능력의 불피알연기에서 12만명의 강재를 뽑아낸 강선의 로동계급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선구자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로동당시대의 대전성기를 펼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영웅들과 혁신자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의 강계정신장 조자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호소에 충성의 맹세로 화답하며 피해복구전구들에 용아 달려나가 기적을 안아 온 최정예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

이렇듯 자기보다 먼저 조국을 생각하면서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간 인민의 열화같은 애국열로 하여 공화국은 나날이 더욱 강해졌고 찬란한 미래를 신심드높이 앞당겨오고있는것이다.

이 땅에 차고넘치는 이러한 애국열은 어디서 솟아난 것인가.

사람들은 가슴뜨겁게 되새겨본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한평생을,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평등자로서, 혁명가로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온갖 고생과 시련을 다 이겨내시며 한생을 초물처럼 강그리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실적을, 내 나라, 내 조국의 풀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가 바로 김정일애국주의라고 그러도 절절히 말씀하시며 온 나라 인민들의 심장을 뜨거운 애국열로 끓여번지게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를.

위대한 애국이 불타는 애국열로 충만된 인민을 키운다.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애국헌신은 이 나라의 천만아들 딸들을 가사보다 국사를 앞에 놓고 조국이 겪는 곤난을 열가지든 백가지든 함께 걸머지며 성실한 탐과 노력으로 나라를 굳건히 만드는 참된 애국자들로 키웠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모두가 김정일애국주의를 피뎠는 심장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사회주의조국의 통성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적의와 헌신성을 높이 받

취하도록 이끌어주셨다. 하기에 이 땅의 천만인민은 위대한 김정일시대의 애국충심으로 한생을 빛내일 열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발걸음에 보폭을 따라세우자! 경애하는 그이의 평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 길에 애국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자!

이것이 공화국인민들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역척불변의 맹세이고 의지이다.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누구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드는 길에 가장 큰 영광과 행복이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그이의 구상을 실현하는 길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고 있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이 땅에 애국자의 대오가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그 애국의 마음들이 밀부러가 되어 이 나라를 역적으로 떠받들고 있다.

김철민



탁월한 사상리론의 거장

새롭게 밝히신 강국평가의 기준

강국이라고 하면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있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지금까지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들이 국제무대에서 대국이라 불리며 강권과 전횡을 일삼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강국에 대한 올바른 리해로 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학기술이나 경제, 군사와 같이 특정한 분야의 위력을 높이고서는 강국의 지위를 흔들 수 없기때문이다.

하다면 공화국이 내세우는 강국의 징표, 강국평가의 기준, 척도는 무엇인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가 리상하는 강국, 사회주의사회는 전체 인민이 먹고 입고 쓰고 살 걱정 없이 편안하게 편안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 누구나 서로 돕고 이끌면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공산주의적미덕과 미풍이 발휘되는 인민의 사회이라고 밝혀주시었다.

그이의 이 가르치심에는 강국인가 아닌가 하는것을 그 나라 인민들이 얼마나 무탈하여 편안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가 하는것을 가지고 평가하여야 한다는 소중한 뜻이 담겨져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하고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더우기 사회적부를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 군사대국,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보면 길은 화려하고 번쩍거리지만 그속을 들여다 보면 사회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 각종 병폐, 해소될수 없는 대립과 모순이 날로 격화되어 통째로 흔들리고 사람들이 마음편히 살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국가와 사회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인민들이 정신육체적으로 쇠퇴한 나라는 강국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또 강국으로 될수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나라의 근본은 인민대중이다. 인민이 있어 국가도 존재하고 사회가 발전해가는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의 가장 귀중한 존재인 인민대중이 어떻게 살며 행복을 누려가는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로 나신다. 강국의 기준도 마땅히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놓고 논해야 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전체 인민이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을 모르며 무탈하여 편안하고 화목하게 살아가

는 사회, 누구나 서로 돕고 이끌면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인민의 사회가 진정한 강국인것이다.

오늘 공화국에서 건설해가는 사회주의강국은 바로 이런 사회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하늘로 내세우시고 인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신다.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내놓으시어오 인민의 안녕을 지키고 행복을 꽃피우는데로 지향시켜나간다.

세계를 휩쓰는 악성전염병으로부터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취해주시신 조치에 의하여 공화국의 인민들은 세계보건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을 창조한 영웅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또 지난 10여년간에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류경치과병원, 옥류아동병원, 묘향산의료기구공장, 보건산소공장 등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이바지하는 전문병원들과 공장들이 수없이 일떠서 사람들을 누구나가 사회주의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건설에 매진하고있다.

누구나가 생기와 활력에 넘쳐

생활하는 공화국인민들에게 행복의 새 보금자리라는 또 얼마나 많은 한해에 하나의 거리가 일떠섰다고 할 정도로 인민들이 살게 될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도처에 일떠섰다.

창전거리,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거리, 미해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삼지연시, 자연재해지역들에 솟아난 사회주의선경마을들...

이렇게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늘어나는 행복의 별천지들에 인민은 삶의 보금자리를 뒀다.

거기에 마시링크리장,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양덕은천문화휴양지, 통라인민유원지, 통일거리운동센터 등 현대적이면서도 문화적인 봉사기자들이 일떠서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은 더욱 윤택해졌다.

그뿐이 아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고 위해주는 미풍이 공화국의 국풍으로 되어 온 나라가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었다.

신문과 방송으로 자주 전해지는 《처녀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영애군인의 안개가 된 처녀의 기특한 소행에 대한 소식, 부모없는 소년, 소녀들의 친부모, 친형제가 되어 위해주고 돌봐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공화국의 참모습을 보여준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강국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이 땅 위에 세계가 알지 못하는 인민의 천하제일락원을 일떠세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사상리론과 현명한 평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줄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인민의 리상사회를 앞당겨주시려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진정 국가사업과 활동의 첫자리에 인민을 놓으시고 철두철미 나라의 근본인 인민의 웃음을 지키고 더 활짝 꽃피우기 위한데로 일관시켜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평도가 있어 공화국은 현상이 알지 못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확신성있게 나아가고있는것이다.

백광철

위민현신의 발걸음

사연깊은 철사다리

주제108(2019)년 5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금야강2호발전소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거연히 서있는 언저를 한동안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금야강2호발전소엔제를 정밀발전소저수지에 많은 물이 차있는것을 보니 기분이 대단히 좋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이날 발전소운영실대를 하나 하나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언저에 올라가실 의향을 표시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시다가 철사다리가 있다고 하시면서 저쪽을 바라보시라고 하시었다.

인민들은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 철사다리로 말하면 발전소 근무성원들이 언저와 수문의 상래, 수위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순찰할 때 리용하는것이였다.

이른새벽에 찾으신 건설장

몇해전 3월 어느날 이른새벽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려명거리 건설장을 찾으시었다.

인민들에게 문명한 새 거리를 하루빨리 안겨주고싶은 마음이 얼마나 불같이있으면 사람들이 아직 단잠에 들어있는 시간에 이곳을 찾으시였으리라는 생각에 인민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날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료색건축기술이 도입된 려명거리가 볼수록 장관이라고,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 더 멋있을것

슬없이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이날 언저에 오르시어 인민생활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르며 일군들은 그이의 헌신의 자욱에 발걸음을 따라세우며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이라고 말씀하시었다.

려명거리를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장소로, 사회주의문명이 융족된 거리로 훌륭히 일떠세우시려고 수심속에 걸쳐 무려 1390여건의 형성안을 보아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창녕 이 땅에 인민의 행복이 한껏 넘치는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앞당겨오실 역척불변의 의지를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끝없이 이어가시는 위대한헌신의 길에서 인민의 기쁨 나날이 커가고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활짝 꽃피어나고있다.

본시기자

사랑앓아 지어주신 이름들

몸소 지어주신 꽃이름-만복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제101(2012)년 9월 30일 능력확장된 평양화초연구소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중전에 비하여 연구소의 화초생산능력이 20배로 늘어났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며 화초신실들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 호동에서 심비디움(당시)을 전문적으로 재배하고있는 정형을 보고 받으시었다.

그 화초에는 참으로 잊지 못할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주제100(2011)년 3월 평양화초연구소로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 육종한 심비디움의 이름을 꽃이름 다음에 달아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남기시었다.

그후 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사

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온갖 지성을 다하여 수많은 꽃을 활짝 피워놓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이름을 지어주실것을 보고드리었던것이다.

추억깊은 사연을 더듬으시며 사진으로 포기마다 활짝 핀 이 꽃들을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꽃이 정말 곱다고 하시면서 몸소 꽃의 이름을 《만복화》라고 지어주시었다.

평양화초연구소로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심비디움은 꽃이 피어있는 기간이 그중 오랜 꽃이라고 하시면서 화초는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 기간이 오랜것을 많이 재배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만복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명명 해주신 꽃이름에는 어버이장군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우리 인민에게 이 세상 만복을 안겨주시려는 그이의 응지가 뜨겁게 어려여있었다.

본시기자 리경월



독특... 문두드리는 소리가 울린다. 인간에게 삶의 보람이 있는 집이 생겨난 때로부터 문두드리는 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무수히 울리고있다. 오늘도 이 나라의 어느 가정에서나 울리는 문두드리는 소리, 그 소리는 이 땅이 무

문두드리는 소리에도 제도가 비낀다

것으로 하여 그리도 아름답고 따뜻한것인가를 전해주고 있다.

것은 없는가 하나하나 물어보며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스히 돌봐주었다.

언제인가 그의 집을 찾아 밤늦도록 대학입학시험준비를 하고있는 그의 학습지도도 해주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에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준 구역인민위원회 일꾼들이었다.

어제 이틀만이라 공부도 잘 배워주고 맛나는 음식이 생겨도 찾아와 안겨주던 고급 중학교 담임선생님, 설명회와 명절날이면 남편그의 집문을 두드리는 동사무소 일꾼들이며 큰일, 작은 일 도맡아 나서는 다양한 이웃들...

매일같이 문을 두드리며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는 생각하였다. 친부모에 비길수 없는 혈육의 정을 아깝없이 기울이는 고마운 사람들이 많고 많이 혼자 아니라고.

독독독! 딸랑, 딸랑!... 문두드리는 소리, 집주인을 찾는 정다운 소리는

사랑과 행복의 메아리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에 네명의 딸자식을 가진 부부가 살고있다. 어느날 저녁시간이었다. 문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안해인 랑유란이 일하는 공장의 일꾼들이 들어서는것이였다.

보며 남편 정광철과 안해인 랑유란은 뜨거운것을 삼키었다. 평양시 평천구역 안산2동 80인민반에서 사는 서성화녀성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서성화녀성에게는 부모가 없다. 그는 엄마라는 말을 배우기도 전에 어머니를 잃고 그후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는 결코 외롭지 않다. 하루에도 여러번 그의 집문을 두드리며 찾아와 친혈육의 정을 부여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이다.

어느날 문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평천구역인민위원회 일꾼들이 그를 찾아왔다. 그리고는 식량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생활에서 애로되는

보통때보다도 시련의 나날더 자주 울리었다. 건국이래 대동란이라고 할수 있는 엄혹한 방위시기의 나날 어디서나 제일 많이 울린것은 문두드리는 소리였다. 문을 열고 나가보면 눈물겨운 정정이 뜨겁게 안겨오는 정다운 목소리가 울리었다.

《열이 나는 사람은 없습니까? 몸이 불편하면 연락해 주십시오.》 《할머니, 이 약을 받으십시오. 꼭 제시간에 정해진 량만큼 잡수셔야 합니다.》 《식량과 부식물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 아침에는 기초식품과 생활 용품을 안고 인민반장이 찾아오고 점심에는 의약품과 안고 의료일꾼들이 찾아왔다. 저녁에는 식량과 부식물을 공급하려고 구역의 일꾼들이 찾아오더니 늦은 밤에는 검병검진을 위해 담당 의사가 또 찾아오고... 이런 일과는 매일과 같이 반복되었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싸워야 하는가를 더 깊이 자각할 때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각급 당, 정권기관의 일꾼들, 의료일꾼들이 어려울수록 인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어머니당의 격려와 보살핌의 손길을 안고 집집의 문을 두드렸다.

《이 땅에 울리는 문두드리는 소리, 정녕 그 소리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목소리, 화목한 대가정에 울리는 행복의 메아리이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싸워야 하는가를 더 깊이 자각할 때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각급 당, 정권기관의 일꾼들, 의료일꾼들이 어려울수록 인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어머니당의 격려와 보살핌의 손길을 안고 집집의 문을 두드렸다.

《이 땅에 울리는 문두드리는 소리, 정녕 그 소리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목소리, 화목한 대가정에 울리는 행복의 메아리이다.》

남조선에서

늘어나는 '중년층 고독사' 그 쓸쓸함에 대하여

고독사는 청년 고독사, '고독사'부터 돌봐야
'올해 몸부림치던 그 순간에 누군가 문을 두드려줬다면...'

고독사 통계에서 가장 빠른 비율은 40~50대의 남중년층이다. 중년층 이후 연령대로 고독사 위험이 높은 것은 사회적 관계가 허약해 버린 데 기인한다. 문제는 중년층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아직 부족한 것이다.

전통적 사회 안전망 구축 붕괴된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
사회적 안전망 구축 고독사 위험에 맞선 복지정책과 사회 관심 필요
순흥명 일간지 편집자 (workman@naver.com)

함께 웃고웃으며 사는 화목한 대가정

사람들 누구나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공화국에서는 혈육이 아닌 남의 자식들을 맡아 키우며 친부모의 뜨거운 정을 바쳐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맡아 10년 세월 나라의 기둥감으로 훌륭히 키워가고있는 모수식 리공장 전영실종업원의 소행도 남의 불행과 아픔을 자기 일처럼 가슴아파하며 사랑과 정을 바쳐가는 미덕의 대화원에 피어난 한말기의 아름다운 꽃이다.

9년전 11월 전영실은 공장의 한 종업원이 세상을 떠난 가슴아픈 소식을 전해 듣고 밤잠도 못 자지 못하였다. 그 종업원의 자식들인 주호와 유경이의 나이는 11살과 8살. 한창 부모의 옷자락에서 어리광을 부려야 할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 밝혀와 좀처럼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며칠째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남편에게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도 그의 의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외동딸도 동생들이 생겼다고 무척 좋아했다. 이튿날 아침 그는 공장의

지배인을 찾았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오. 동무의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건강하지 못하지 않소. 그리고 지금 많은 종업원들이 저처럼 그대들을 자기 집에서 키우겠다고 제기하고있으니 마음을 놓소.》 이렇게 말하는 지배인에게 전영실은 딸 하나밖에 없는 자기가 오누이를 키우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의 마음에 감동되어 공장에서는 주호와 유경이를 그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려 전영실은 사람들에게 자라장래를 말하였다. **“우리 아들딸이라고. 그의 미거는 단순한 동정이나 애정에서 출발한것이 아니냐. 그것은 서로 돕고 이끄는것이 국공으로 되고있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숭고한 인간애였으며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의리심의 발현이였다.”**

그의 집문을 두드렸다. 이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에서 주호와 유경이는 자기들이 안겨사는 품이 얼마나 넓고 따사로운가를 체보로 느꼈다. 하기에 주호는 몇해전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조국보위초소로 떠났다. 유경이도 얼마전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있던 초소에서 일하게 되었다. 유경이가 사회생활의 첫발을 떤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해주고 한식술처럼 사진을 찍었다. 그날 유경이는 그 사진에 또박또박 이런 글을 적었다고 한다. **“한집안식솔! 거기에 사는 사람들모두가 하나의 대가족이요. 이 세상에서 돌도 없는 은혜로운 품에서 사는 더없는 공자가 비껴있었고 고마운 제도를 위해 청춘시절을 아름답게 수놓아갈 맹세가 어려웠었다.”**

공화국의 맑고 푸른 하늘에 필연 휘날리는 람홍색국기! 가슴부들부들 공지와 자부심에 넘쳐 성스러운 국기를 바라보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말한다. 공화국을 떠나 나자신과 우리모두의 참다운 삶과 행복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하기에 누구나 국기를 뜨겁게 사랑하며 존엄있게 대하는것이 국공으로 되고있는 공화국이다. 국가적인 명절이나 주요기념일이 오면 거리와 일터,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람홍색 국기가 휘날리는 모습을 볼수 있다. 거리를 오가는 청년들과 아이들의 손에도 국기가 휘날리고있다. 국기를 띄우며, 국기를 바라보며 국기와 함께 흘러온 복받은 삶을 돌이켜보고 조국을 더욱 빛낼일 일념으로 가슴끓이는 공화국인민들이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석암동

인민의 마음속에서, 생활속에서 백리내린 국기

에서 살고있는 한영희녀성의 가정의 실례가 그것을 잘 말해준다. 한영희녀성의 할아버지는 불라는 고지에서 공화국을 끝까지 지켜낸 전령보병이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한다. **“전우들이 귀중한 생명을 바쳐 지켜낸 공화국,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로 국이었다. ... 조국이 있고서야 우리자신의 생명도, 생활도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철없던 시절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그로 하여금 군관의 안해로,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어머니로 되게 한 바탕으로 되었다. **“말이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는 날에도, 몇해후 둘째가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는 날에도 한영희녀성이 자식들에게**

한 말은 꼭했다. **《할아버지세대가 피로써 사수한 공화국을 이세는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서도 국기에 대한 공화국인민들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것인가를 알수 있다. 공화국을 형성한 운동복을 생산하는 선교복직공장 종업원들의 심정은 또 어떠한가. 람홍색기발을 상징하는 붉은색, 흰색, 푸른색의 바탕에 공화국기와 조선지도를 형상화한 《조선》이라는 이름을 새겨놓은 여러가지 형태의 운동복들. 사람들이 국기가 새겨진 일상옷과 운동복을 즐겨입는것을 볼 때마다 생각이 깊어진다. **《우리가 만든 운동복을 입고 훈련장에서 땀을 흘리고 세계무대에서 공화국을 휘날리는 체육인들의 모습**

이 금시라도 보이는것만 같아 하나하나의 제품생산에 지혜와 정열을 쏟아붓곤 합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녀성노동자는 람홍색기발을 새긴 옷을 입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승연해진다고 말했다.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국기는 단순한 국가상징물이 아니라. 그것은 인민의 운명과 참다운 행복, 영원한 미래가 실려있다. **“존엄성은 강국의 기강과 승리가 나뉘는 기복의 필연에 어려웠고 위대한 조국성로동자는 람홍색기발을 새긴 옷을 입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승연해진다고 말했다.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국기는 단순한 국가상징물이 아니라. 그것은 인민의 운명과 참다운 행복, 영원한 미래가 실려있다.”**



린 사람들은 어리둥절해 무슨 영문인가 하여 모이었고... 그리다나니 전동차의 출발이 잠시 지연되었다. 장애자와 신통 떠나지 못하는 전동차! 순간 뇌리에 장애자와 떠나지 못하는 전동차라는 이 말속에 비껴있는 또 하나의 화폭이 아른 아른 빛을 띠며 떠올랐다. 얼마전 서울의 지하철도역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의 장애자권리개선요구를 요구하는 담승시위가 벌어졌고 그로 하여 여러 로선의 운행이 지연되었다고 한다. 그들의 지하철도역승시위는 무려 36번째. 호소나 청원도 해보고 가슴치는 절규도 터쳐보았으나 《정부》는 들으려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협박과 차별, 싸늘한 태도가 그들의 가슴을 아프게 끓여놓았다. 장애자들이 기껏 할수 있는것

은 전동차를 일시 멈춰세울수 있는것뿐 점점 더해진다는 불우한 생활지나 참기 어려운 고통을 멈춰세울수 없는것에 없었다. 망설이던 불행한 모습들이 땅우에서 하여 결코 달라질수 있단단. 선전적장애가 있는 6살아들과 함께 극단적선택을 한

에게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수시로 내뱉는 멸시를 마주해야 하는 권리, 배척과 차별을 승명으로 받아들이야 할 권리만이 있을뿐이다. 지어는 장애자자식을 둔 어머니에게 《말춤》(엄마와 끈끈의 합성어)이라는 혐오스런 딱지를 아무 꺼리낌없이 붙이고있다.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장애자들의 곁에 늘 머물러있다. 불편해하고 괴로워할새라 누구나 친형제, 친부모가 되어 그들의 운명을 보듬어주고 소원과 희망에 따라 재능을 꽃피워주는 품이 바로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다. **“나의 불행은 자기의 아픔으로 여겨며 도와주고 이해주는 미덕이 위풍이 차넘치는 사회와 남이아 어떻게 되든 지어 혈육도 안중에도 없지 않은 인민의 안일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사회-이 극적인 대조말로 북과 남의 명암이 아닐수 없다. 깊어지는 생각을 깨며 전동차는 서서히 역구내를 떠났다.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와 축복의 손길이 때때로 장애자청년과 그의 안해는 전동차와 더불어 서서히 멀어져 갔다.”**

불화역, 평양역... 종착역은 어디인지 몰라도 이들은 그 어느 역에서나 사람들의 뜨거운 환대와 축복을 받으리라. 아니, 인생의 머나먼 종착점까지 그들은 어머니조국의 사랑, 민심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속에 살리라. **“바래움의 손길을 흔드는 나의 눈가엔 남조선땅의 장애자들의 불우한 모습, 역구내를 떠나지 못할 전동차의 음울한 동체가 어려웠다. 그렇다. 불행과 고통, 멸시와 혐오가 어지럽게 뒤섞인 남조선에서 생존권을 위해 담승시위를 벌이는 장애자들로 인해 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전동차에서 나는 각종 사회악으로 차체되고 파괴되고 질주하는 남조선의 실상을 보았다. 그리고 아름다운 꿈과 희망, 끝없는 행복을 살고 달리는 내 조국의 전동차에서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리는 사회주의의 참모습을 보았다.”**

수필 지하철도역에서

녀성의 울분이 지금도 남조선의 불우자, 장애자들의 가슴을 허비고있고 발달장애로 고통하는 자식들의 처지를 더는 눈뜨고 볼수 없으며 그들의 목숨을 다름아닌 부모란 사람들이 스스로 끊어오만 하는 비극적현실이 저 남조선 땅 곳곳의 어제가 되고 오를다. 그들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장애자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따스함이 결여된 사회, 장애자들의 고통과 우물, 상실과 괴로움의 상처를 가셔줄 따뜻한 눈이 강그러져 말라버린 사회가 바로 남조선이다. 허나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장애자들을 보라. 그들의 눈가에 언제 한번 서러움이 스물스물 맺힌것있으며 살기엔 막막해 가슴을 쥐어뜯으며 생명의 몸부림을 쳐보았지만 있었는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따스함이 결여된 사회, 장애자들의 고통과 우물, 상실과 괴로움의 상처를 가셔줄 따뜻한 눈이 강그러져 말라버린 사회가 바로 남조선이다. 허나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장애자들을 보라. 그들의 눈가에 언제 한번 서러움이 스물스물 맺힌것있으며 살기엔 막막해 가슴을 쥐어뜯으며 생명의 몸부림을 쳐보았지만 있었는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따스함이 결여된 사회, 장애자들의 고통과 우물, 상실과 괴로움의 상처를 가셔줄 따뜻한 눈이 강그러져 말라버린 사회가 바로 남조선이다. 허나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장애자들을 보라. 그들의 눈가에 언제 한번 서러움이 스물스물 맺힌것있으며 살기엔 막막해 가슴을 쥐어뜯으며 생명의 몸부림을 쳐보았지만 있었는가.

동포들의 심리에 맞는 문화체육활동을 벌리도록

주제 81(1992)년 2월 어느날이었다. 이날 총련인군들을 만나 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총련에서는 문화체육활동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동포군중을 교양하고 총련의 두리에 묶어세워야 한다고, 동포대중을 교양하고 묶어세우는데서 그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예술활동과 체육활동을 다양하게 벌리는것이 좋다고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침을 받아안으며 총련인군들은 누구라 없이 승업한 감정에 휩싸여 그이를 우러렀다. 문화체육활동을 단 순히 동포들의 문화정서 생활로만이 아니라 그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우는 데가 위력한 수단으로, 공간으로 보시는 것이이시었다. 제일동포사회에서 문화 체육활동은 각이한 동포들이 이리저리한 울타리를 넘어 하나로 어울릴수 있

는 중요한 생활적공간이었으며 민족의 넋을 심어주고 민족의 기개를 시위하는 좋은 계기였다. 바로 이 점을 환히 꿰뚫어보신분이 위대한 장군님 이시었다. 이 육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에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예술소조들과 체육소조들을 많이 조직하고 그 운영을 다양 화, 정상화함으로써 평범한 동포대중의 민족자주의식을 높이고 사회주의적

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참으로 위대한 스승의 고귀한 가르침이였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래전부터 총련조직들이 사람과의 사업, 동포군중과의 사업을 친필필적으로 하여서는 안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깊은 가르침을 받아안으며 총련인군들은 넓고 뒤떨어진

관념을 말끔히 털어버리고 동포군중과의 사업을 새로운 계두에서 밀고나가며 특히 동포들이 자각적으로 즐겨 참가하는 예술활동, 체육활동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본때있게 벌리려는 새로운 결심을 다지였다. 이후부터 총련의 동포 사업에서는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변화가 눈에 띄이게 나타나기 시작 하였다. 본사기자 전 영 민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련북애국의 길에서 참된 삶의 자욱을 새긴 목사 (1)

인생의 출발은 비록 잘못 때였어도 말년이나마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서 뚜렷한 삶의 자취를 남긴 사람들이 있다. 애국인사 김성락선생도 그 들중의 한사람이다. 한생을 반공으로 살아온 목사, 그는 어쩌하여 인생살이 내내 자기 인생의 신조와 결별하고 련북애국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던가.

《창세기명》과 《신사참배》를 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가르쳤던 이 《죄》가 되어 1936년 마가를 정든 고국을 뒤에 두고 다시 미국으로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국에 간 선생은 로스앤젤레스 연합장로교회의 목사로 있으면서 재미동포들의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남조선에서는 복음이 깃발이고 죄악이 판을 치고 있다. 진리를 추구하는 그리스도교는 웅당 죄악과 싸워야 하고 싸워서 이겨야 하건만 그렇지 못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사도가 존재한다고 할수 있는가. 헌데 놀라운것은 북에서는 인간을 속박하기 위한 하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실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 하지만 선생은 그것을 리해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하여 1960년대 초 다시 미국행에 오던 선생은 로스앤젤레스 연합장로교회의 목사로 있으면서 반파쇼민주화운동을 벌리는데 힘을 쏟고 있었다. 이 땅에 민족분열의 비극이 시작된 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이년 1980년대가 다가왔다. 당시 미국에서 조국통일촉진회 회장, 《한국인교회연합회》 교무로 있던 김성락선생은 그이로 고국망을 밝히 보고싶은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수십년동안 이역의 하늘 밑에서 살아오면서 언제나 그리워마지 않던 고국망을 생전에 찾아보려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선생은 드디어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다. 본사기자 리 송 건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제일본조선민주성동맹과 제일본조선청년동맹을 비롯한 총련의 군중단체들이 총련부흥의 새

시대를 승리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 임무를 다해나가고 있다.

를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의 마당으로 만들었다.

들을 추켜세우기 위한 대책을 수시로 토의하였으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집체적지혜를 모아 풀어나갔다.

모범분회로, 2개 분회가 부분별모범분회로 되는 성과가 이루어졌다.

모두가 앞서나가는 단위로

제일본조선민주성동맹(녀성동맹) 가나가와원 본부에는 9개의 지부가 있다. 지난 시기 지부들의 조직력이나 활동수준에서는 일정한 격차가 존재하였다.

본부원군들은 이 격차를 없애기로 하였다. 모든 지부들을 하나같이 활기있게 전진하는 조직으로 만들자. 이것이 그들의 결심이었다. 본부에서는 우선 지부위원장회의

를 열어놓고,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의 마당으로 만들었다. 또한 지금껏 지부에만 맡겨온 분회강화사업을 현분부정원들이 함께 책임졌다. 이는 지부원군들을 더욱 분발시켰다.

결과 활동이 완만하였던 분회들이 정상상태에 들어갔다. 그나날 1개 분회가 종합

기증조직강화에 힘을 넣어

기증조직강화에 힘을 넣어

움직이는 2개 조정반의 경험을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본부위원장부리가 한 지부를 맡아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본부에서는 강의와 강습, 학습회와 경험교환모임을 자주 열어 지부원군들의 자질을 높이는 한편 가장 활기있게

이 학교는 일찌기 미국장로교계통의 선교사들이 전도사업의 일환으로 평양에 세운 학교였다. 선생은 당시 평양 신양동의 목사로 있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부친의 뜻을 따라 평양숭실중학교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본부는 최근 몇해동안에 56개 조정반을 모두 활성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중양상임위원회로부터 맡긴기증조직인 조정반에 이르는 모든 조직들을 일심단결의 대오, 총련의 믿음직한 성들로 반석같이 다져나가는 이런 헌신적 노력에 의해 조정사업에서는 날로 큰 전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사기자



총련녀맹보塚지부

安倉分회총회

적대세력들의 도발을 단호히 짓몽개버리며 (5)

1977년 7월. 《EC-121》대형강첩비행기사건과 판문점사건 등 반공화국도발행위를 저질렀다가 영용한 조선인민군에 호되게 얻어맞은 미국은 여기서 교훈을 찾을 대신 무장직승기를 통해안의 공화국령공에 깊숙이 불법침입시키는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

가 기회를 타서 도망치려고 하자 즉시 포화력을 퍼부었다. 미군무장직승기는 삼단같은 불길에 휩싸여 격추되고말았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오늘 미군직승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구선봉상공을 거

사건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상보가 전파를 타고 우주공간을 날았다. 상보가 발표되자 세계는 미국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조선인민에게는 열렬한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었다.

히 접어들 생각을 못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무비의 단력과 배짱, 그 슬하에서 자라난 인민군대의 총대가 저들의 송풍을 겨누고있는데 잘못했다고 비는 것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때 미국의 어느한 출판물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었다. 《조선에서 전쟁을 일으키는것은 미국이 스스로 제 승리를 쫓는 자살행위이다.》

도발자들에게 차례질것은 비참한 운명별이라는것을 다시금 보여준 미군직승기격추사건

만단의 경제대세를 유지하고 있던 조선인민군 고사포병들이 즉시 경고사격을 하였다. 질겁한 미군무장직승기는 살려달라는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처 삼일포리계선까지 침입하였다가 인민군고사화력에 얻어맞고 남강하류에 떨어져 직승기에 탔던 미제침략군 3명은 죽고 1명은 사로잡혔다니 잘되었다고, 우리 인민군중인들이 사격을 잘하였다고 치하하시면서 적들이 직승기를 잃고 도발을 걸수 없으므로 그에 대처한 작전준비를 잘하도록 하라고 이 르시였다.

미국은 저들의 더러운 죄상을 더는 감출수 없게 되였으며 공화국의 단호한 조치에 적소리도 못하고 공식적인 사과문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렇게 미군직승기사건은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을 또다시 시위한 사건으로서 도발자들에게 차례질것이란 언제나 수지와 명망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리 연 선

그나 이러한 술책에 넘어갈 인민군중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적무장직승기

후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침에 따라 미군직승기

미국은 저들의 더러운 죄상을 더는 감출수 없게 되였으며 공화국의 단호한 조치에 적소리도 못하고 공식적인 사과문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렇게 미군직승기사건은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을 또다시 시위한 사건으로서 도발자들에게 차례질것이란 언제나 수지와 명망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윤석열역적대당이 《보안법》의 칼을 마구 휘두르며 진보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에 광분하고 있다.

문을 발표한 로동운동단체들의 위대한 력사가 담겨져있다. 하기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을 애국애족의 교과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와 공동결의문을 발표하였다고 해서 남조선의 로동운동단체들을 《보안법》위반

하는 인권황무지로 변해가고 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시민사회 및 운동단체들이 《보안법》은 인간의 사상과 량심의 자유를 억누르는 반인권악법이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반민주악법이다. 라고 하면서 반윤석열투쟁, 《보안법》철폐투쟁에 파강히 떨쳐나서고있는것은 지극히 옹당하다.

악법이 실판치는 피썬시회

역적대당이 지난 6월과 7월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보급한 《민중사랑방》, 《통일시대연구원》의 진보적인 언론인들과 학자들을 《보안법》에 걸여 걸거하고 사부실을 수색하면서 각종 자료집들과 컴퓨터기록기 등을 압수해가는 폭거를 저지르는데 이어 지난 《8.15전국로동자대회》에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와 공동결의

로 받아안고 읽고 또 읽으며 거기에 담겨진 숭고한 뜻과 정신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고록을 출판보급했다고 해서 《보안법》의 칼을 휘두른것은 정의와 진리, 민족을 등진자들의 추악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에 걸여 탄압하려고 날뛰고있는것도 민심의 지향에 역행하는 파쇼깡매들의 란동이다. 평생 사람잡이에 미쳐날뛴 윤석열역적대당에 의하여 힘악한 군사파쇼독재시대가 되살아나고있는오늘의 남조선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

민심에 역행하여 사대매국과 동족제국, 파쇼와 반인민적악정에 매달리는 윤석열역적대당에게 차례질것이란 인민의 준엄한 심판밖에 없다. 어 장 수

조선침략을 노린 《운양》호사건

《운양》호사건은 1875년 9월 일본침략자들의 연합 《운양》호가 강화도에 침입하여 무장도발을 감행한 사건이다. 19세기중엽 《명치유신》으로 알려진 부르조이개혁을 실시하자마자 대조선침략정책인 《정한론》을 들고나온 일본침략자들은 1875년 9월 《운양》호사건을 일으켜 자기의 침략목적을 달성하려고 꾀하였다. 1875년 5월 침략선 《운양》호를 부산항에 불법침입시킨 일본침략자들은 그 무섭 《발포연습》을 한다고 위세를 돋구었다. 조선봉건정부가 저들의 힘앞에 위압되어 스스로 굴복할 것이라고 라산하였던것이다. 하지만 일이 저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해 9월 함로를 추방한다는 구실밑에 《운양》호를 강화도앞바다에 또 다시 침입시켰다. 남의 령해에 들어가자면 해당 나라의 사전승인을 받는것이 국제법상요구이며 국제관례이다. 당시 조선봉건정부는 불법침입한 일본침략선이 즉시 물러갈것을 요구하였 다. 그러나 일본침략자들은 그에 응하지 않았다. 사전에 군사정탐임부와 강화도공격임무를 받고왔기때문

조선침략을 노린 《운양》호사건

이었다. 이에 대하여 일본록군대장 야마가다는 《1875년 9월 《운양》호 함장 이노우에 소좌는 조선연해안으로부터 청나라 우정에 이르는 해로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암암리에 조선에 대한 시위운동을 실시하라는 내척훈령을 해군성으로부터 받았다.》고 토설 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물이 떨어졌다다는 구실을 내대면서 당시 한성을 지키는 군사요충지였던 초지진포대군처에까지 기어올랐다.

초지진의 조선수비병들은 일본침략무리들을 단호히 격퇴해버렸다. 그러나 《운양》호의 침략무리들은 방이가 약한 섬들을 습격하여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을 살륙 하였으며 야만적인 파괴략탈 만행을 감행하였다.



침략선 《운양》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침략자들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조선측이 일본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였다.》는 생트집을 걸면서 1876년 1월 12개 조항으로 된 불법무효한 《강화도조약》을 강압적으로 조작해냈다.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날강도적인 《강화도조약》을 조작하고 무력에 의한 조선 침략의 서막을 열어놓은 일

본은 그후 무력으로 조선을 완전히 비범정복하고 40여년 동안에 걸쳐 전대미문의 식민지파쇼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재난을 들켜왔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 하지만 일본은 오늘까지도 퍼로 일족진 과거죄악을 성근하게 반성하고 배상할 대신 력사적공과 반공화국, 반총련소통, 군국주의부활과 제침략행에 광분하고있다. 우리 민족은 왜나라것들의 만고죄악을 잊지 않았고이며 그 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결산하고야말것이다. 리 송 건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2조(정의) 7조(찬양·고무 등) 위헌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 2022.9.15(목) 12:00

블속에 뛰어드는 《통와대》의 부나비들

공화국의 군사적강세에 기절초풍한 윤석열역적패당이 분별을 잃고 외세의존과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에 더욱 미쳐날뛰고있다.

얼마전에 있는 제3차 남조선미국위급확장억제전략협의체회의를 전후로 벌인 윤석열역적패당의 추태만 보아도 그러하다.

남조선의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부호전파들과 외교부장들은 회의를 앞두고 미국과의 정보공유, 공동계획, 위기협의, 미전략자산전개, 합동군사연습, 전략적소통 등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제3차 남조선미국위급확장억제전략협의체회의에서도 그러한것들이 논의될것이라고 떠들어댔다.

또한 회의직후에는 저저마다 나서서 그 무슨 조선훈도정세의 엄중한 상황에 대한 《실감한 우려》와 《북에 대한 압도적, 결정적대응》을 운운하면서 미국이 재래식, 첨단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총동원할것을 약속하였다. 북핵에 대한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합의한것은 북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경

고성의미》를 가진다고 떠벌이고있다.

다 췌어진 미국의 《핵우산》밑에서 어떻게 하나 추악한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가소롭고 어리석은 짓거리가 아닐수 없다.

이번 회의에 대한 내외언론들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미국이 《철통갈고 흔들릴 없는 확장억제력제공》 약속을 제확인하였고 북의 어떠한 핵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하고있지만 실용성이 없다. 미국이 공화국의 핵타격으로 본토와 해외의 기지들이 초도화될 위험과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조선에 지지를 의사는 없을것이다. 미국이 남조선에 강도높은 확장억제력을 제공할수 있다고 보는것은 《희망적사고》이며 미국에 《승고한 희생》을 요구하는것도 어리석은것이라는 것이 내외언론들과 전문가들의 일치한 평이다.

저들의 이익에 저촉되고 운명이 위태로워지면 《동맹》이고 뭐고 고클은 휴지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Stop US-ROK joint military exercises!)

천일매국노의 굴욕적행위

오는 11월 일본해상 《자위대》 창설 70년을 계기로 국제관습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패전국의 국주주의야망의 산물인 《자위대》가 그 무슨 창설기념식을 가진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경악을 자아내는것은 윤석열역적패당이 《자위대》가 필연이게 될 이번 관습식에 참가하는것이 문제될게 없다고 하면서 관습식참가를 기정사실화하고있는것이다.

피로 얼룩진 일제전범의 상징인 《육위대》도 문제없다는것이아말로 천일매국노다운 주장으로서 민족의 공분을 자아내는 굴욕적추태가 아닐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육위대》를 두고 그 무슨 《군기》라느니, 국제적인 다자련합훈련에서도 리용되었다느니, 해상 《자위대》기발을 리유로 참가하지 않는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나 하며 일본관습식에 한사코 참가하려 하고있는것은 민족적자존심과 얼이라고는 고클만큼도 없는 천일매국노의 사대매국적정태이다.

세월은 흐르고 산천은 변하여도 과거 일제가 저지른 그 모든 야만적행위는 천일매국노 반인륜적정태로서 대륙침략의 상징이었던 《육위대》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역적패당의 일본관습식참가 움직임은 《한일관계개선》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내세우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의 굴욕적인 대일정책추진의 직접적발표이다.

최근에만도 일본정객들이 8.15를 맞으며 야스쿠니신사에 배를 지어 물러가 군국주의망령들을 《위로》하고 재침침공을 고취해낸것은 세인이 다 아는 일이다.

유독 역적패당만이 이 망동에 대해

《멈출수 없는 관습》이라고 두둔해나선대 이어 《8.15경축사》에서는 일본을 그 무슨 《이웃》,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라고 치켜세우며 《관계개선》의 추파를 던졌다.

은 세계가 비난하며 반대배격하고있는 핵오염수방출문제에 대해서도 피해를 제일먼저, 제일 극심하게 받게 될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일연반구의 항변은 커녕 오히려 음모적으로 지지해나가고있는 판이다.

도를 넘어서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의 천일매국노행위는 명백히 침략파벌이들의 조선반도재침략을 부추기고 침략의 발판을 놓아주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정태이다. 기를어저가는 괴멸의 운명을 사대매국노 부지해보려는 어리석은 망동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이 2018년 일본은 《육위대》문제도 남조선에서 진행된 관습식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오늘 윤석열역적패당은 일본의 《육위대》 밑으로 제발로 머리를숙이고 들어가겠다고 하고있으니 차마 눈뜨고 못볼 일이다.

윤석열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는것은 결국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재침과 지배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뜻이 명백하다. 민심이 악화될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 정서에 반하여 일본의 심기만 살피는 윤석열때문에 일본것들이 더욱 뻔뻔스럽게 오만해지고있는것이라고 강력히 성토단죄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윤석열역적패당과 그 패당이 민족의 천년속죄에서 사회와 배상을 받아내기는 커녕 비굴하게 계속 굴신시키다가는 헤어나올수 없는 절망의 심야속에 깊숙이 빠져들어가게 될것이다.

김태준

더 큰 화를 초래하는 우둔한 자멸행위

윤석열역적패당이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싸드》기지운영의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달려붙고있다.

역적패당은 남조선강점 미군이 원하는 시간과 방식으로 물자와 인원을 반입할수 있도록 지상접근권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주마다 2~3차씩 수송기와 직송기로 물자와 인원을 《싸드》기지에 들여보내던 수송회수를 지난 6월부터 5차로 늘였다. 지난 9월 4일에는 《싸드》기지에 주 7차이상 물자를 들여 보냈다고 하면서 기지내 미군의 병설공사에 필요한 건설장비들을 실은 10여대의 수송대를 새벽 1시 30분경에 도착고양이처럼 투로를 통해 들어밀었다. 기지정상운영에 필수적인 기지현장조사도 1년 이상 결여야 하지만 지난

8월 19일 1차일반화평경향장기협의회의후 시뮬레이션 현장조사를 위한 요구대로 다음해 상반기안에 끝내려고 획책하고있다.

지어 윤석열역적패당은 남조선강점 미군에 《싸드》부지를 점거마치는 문서에서 서명까지 하였다.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정세를 더욱 험악한 국면으로 몰아가는 무분별한 군사적행동이 아닐수 없다.

미국이 남조선에 《싸드》를 배치한것은 북침전쟁으로 전조선을 병탄하며 나아가서 주변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여 침략적인 인디아태평양양지배전략을 실현해보려는 흉악한 기도에 따른것이다.

박근혜등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미국의 이러한 불순한 기도에 추종하여 《싸드》를 끌어들이는데 발벗고

나섰다.

미국과 보수패당에 의하여 남조선에 《싸드》가 배비됨으로써 남조선은 북침전쟁과 세계제패전략실행을 위한 미국의 전초기지, 전쟁화약으로 더욱 철저히 전락되고 대국들의 고래싸움에 등등러지는 가련한 새우신세로, 유사시 선제타격 및 보복타격의 제1과녁으로 되게 되었다.

그리고 남조선인들이 엄청난 인명 및 환경피해와 막대한 경제적부담을 들쓰게 해서리던 남조선의 생명안전도, 민족의 운명도 안중에 없으며 력사에 오명을 남길 치욕스러운 매국행위도 서슴치 않는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스스로가 여실히 드러내는 망당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싸드》기지를 운영정상화책동에 달려붙고있는것은 날로 더욱 강화되는 공화국의 군사적강세에 비한 저들의 군사적체제를 만회하고 나아가서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에 편승하여 체질적이고 병적인 동족암살야망을 실현해보려는데 더러운 목적이 있다.

역적패당이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그 무슨 《한국형3축타격체계》완성에 결심히 필요하다고 보고 《싸드》기지를 운영정상화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것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그러나 그것은 썩어진 우산으로 소나기를 막아보려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망상, 화약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우둔한 자멸행위이다.

역적패당이 《싸드》의 정상운영으로 얻을것인 공화국과 주변나라들로부터의 무자비한 보복배에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민심의 저주와 버림을 받아 마땅하며 주변국들로부터 그 어떤 가혹한 정치외교적, 경제적사적보복을 당해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지금 역적패당이 《북핵, 미싸일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횡성수설하면서 《싸드》의 정상운영책동을 합리화하고있지만 그러한 궤변으로 자기들의 매국배적죄악을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침략자의 《싸드》를 보태명이지침 그러한은 망동이 그 얼마나 천추에 씻지 못할 매국배적죄악인가에 대해 머지않아 명백히 후회속에 깨닫게 될것이다.

김광명

후 14년만에 최악으로 떨어졌다.

물가 또한 영망진창이 되어 사람들의 생존을 심각히 위협하고있다.

그뿐만도 아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만 보아도 1997년 외환위기이후 가장 높았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배추값은 72%, 무우는 64.6%, 양파는 53.4%, 돼지고기는 19%, 닭알은 38.7%

만평 《윤망진창》

로 경쟁 뛰어들었다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재정형편은 더욱 영망진창이다.

무지몽매한 윤석열역적패당의 금리인상정책으로 가정에서의 빚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가계부채액은 무려 1조 4 000억US\$라는 천문학수치를 기록하고있으니 남조선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의 벼터미에 갇혀 허우적대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의 집권이후 남조선경제와 민생은 《3고》(고물가, 고금리, 고훈환율)와 《3저》(저생산, 저소득, 저투자)의 수렁에 깊숙이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있다.

오죽하면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이 《예로부터 영망진창이라는 말이 전해오는데 윤석열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다. 윤석열때문에 경제와 민생은 그야말로 영망진창》(윤망진창)이 태버렸다.》고 개탄하고있겠는가.

남조선인터네들에도 《윤석열이 당선되고 한 일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 자기 사무실과 공공기관을 《윤석열역적패당》이후 수백만US\$가 람비되는 취입식과 민간배에 기꺼워지지 않는다.》, 《시작을 보니 끝이 보인다.》, 《앞으로의 5년이 정말 지옥같이 여겨진다.》는 탄식과 야유의 글들이 차넘치고있다.

과거에 처한 경제와 갈수록 험해지는 생활고에 허덕이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채 《대통령을 처음 한지라...》,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말만 남볼처럼 외워대고있는 이런 일간이가 《대통령》감투를 뒤집어썼으니 남조선정체가 영망진창으로 돼버리는것은 천만번 지당한 리치인것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의 집권기간 남조선경제와 민생은 물론 모든것이 《윤망진창》될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김원철



얼마전 윤석열역적패당이 등지를 틀고있는 통신사무실 근처에 풍자만화가 10여장이나 나뉘어 회한한 구경거리로 되었다고 한다.

마스크를 착용한 윤석열역적패당이 공문포의 앞을 걸어헤치고 알몸뚱이를 드러내며 헤벌쭙 웃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는데 눈발겨른 몸의 일부는 너털털 김진희의 낫뚱으로 가리운것이 실로 가관이였다고 한다.

미신과 재물에 환장한 너털네의 치마폭에 파묻혀 그의 해피한 추분과 비행들에 아늑보살하는 윤석열의 꼬락서니를 적나라하게 펼쳐보인 만화는 세인의 양천대소를 자아냈다.

사람들은 풍자만화의 《마음껏 락서하세요》라는 문구아래에 《퇴진까지 1초 준다.》, 《세계적망신, 경제폭망 윤석열 퇴진하라.》, 《왜 태어났다.》, 《그냥 내려와.》 등의 글을 써넣으면서 역도를 마음껏 조롱하였다.

너무도 엉당한 풍자이

고 조롱이다.

제 대접은 제가 받는다고 역도가 받은 망신은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응당한 대접이다.

《대통령》선거기간 사 람들로부터 《도리도리 유.》, 《윤도리랑》이라고 조소를 받았는가 하면 합상 다리를 찍 버리고 앉은것으로 하여 《뚝벌날》으로 불리우다 못해 《아래도리만 보고 누군지 못하기》라는 인터넷 웃웃회의 주인공으로 된것이 바로 윤석열역적패당이다.

뿐만아니라 《지평을 열다.》를 《지평선을 열다.》로, 《반드시》를 《반듯이》로 써놓는가 하면 인 천시에 써놓은 강화도에 대해 《강화도가 인천보다 얼마나 큰가?》라고 물어보아 초보적인 철자에도, 지 리상식도 모르는 무식쟁이로 비난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감투를 쓴 후에는 제 잘난듯이 거들먹거리며 무지몽매한 본래, 너털네의 치마폭에 놀아

피리지는 싸움 -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인터넷에 올리면서 강하게 반발해나가고있다고 한다.

리준석의 변조인단도 리준석의 당대표직투기와 비상대책위원회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있는 속에서도 가가정가가 논의되는것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불복행위를 총동원하여 대응할것이라고 하고있다.

정치해태기인 리준석이

《국민의힘》이 당내부를 대문판에 빠뜨린 전 당대표 리준석에 대한 추가정계조치를 가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리준석이 당소속의원들과 당기구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없이 《개고기》, 《양두구육》과 같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성정대의혹으로 당의 위신을 저락시키는 등 적지 않은 해를 끼쳐왔다는것이 그 이유이다.

이에 리준석은 톨리위원회가 친윤석열파의 이익을 위해 전직당대표에 대한 추가정계 조치를 운운하고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을 위반하는것이라는 비난글들을

《사(四)》로, 병역을 역병으로 틀리게 잘못 읽는 일이 벌어지고있다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영어어휘교재는 열심히 구입해 영어단어의 어원까지 파고들면서도 정작 우리 말의 어휘력을 높이는 데는 소홀히 하고있는 사회의 현실을 개탄하였다.

고유한 우리 말과 글이 말살되어가는 남조선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이다.

남조선의 언어학자들이 일상생활에서 1 643개를 조사 분석한데 의하면 고유한 우리 말은 불과 5%이고 95%가 외래어와 잠랑말로 되어있었다고 한다.

건물의 이름만 봐도 《빌딩》, 《모텔》 등 외래어로 불리우는것이 다반사이다.

그러나 하면 우리 말과 외래어가 혼란된 잠랑말과 같은 별의별 리해하기 어려운 피이한 언어들까지 생겨 사람들의 언어생활에 마구 침투하고있다.

남조선에서 한계 일간신문에 표기되는 외래어단어수는 평균 800여개이며 외래어와 잠랑말이 50%이상이라고 한다.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다른 신문들에 비해 조선글을 많이 사용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사회진보도가 높다는 사실은 《언어식민지》, 《언어오물장》으로 통하는 남조선사회의 실태를 더욱 잘 알수 있게 한다.

외국어 특히 영어를 잘해야 《인정》을 받고 외국어가 적힌 물건이나 소지품을 들어야 《돌보이는》것이 오늘 남조선사회의 서글픈 현실이다.

하긴 이른바 정치인이라고 자처하는자들부터가 우리 말보다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즐겨 쓰기를 좋아하고 외래어

백두산의 절경들 (2)



본사기자 동창현

효능 높은 천연 건강식품들

최근 공화국에서 개발한 백영양강화콩다식과 해삼단백 영양제가 효능이 높은 천연 건강식품으로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키크기와 백영양강화콩다식과 해삼단백 영양제는 콩가루를

의 영양성분들을 100% 흡수할 수 있게 하여 백발육을 촉진시켜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키크기에 도움을 주고 로인들의 백영양을 개선시켜준다.

림상적으로 검토한데 의하면 10대의 어린이들과 20대의 청소년들에게 백

영양강화콩다식을 3달 이상 정상적으로 먹었더니 10대의 어린이들은 한해에 키가 7~8cm, 20대를 전후한 청소년들은 최고 5cm 키가 컸다고 한다.

또한 백영양강화콩다식을 3달동안 먹은 로인들속에서 뼈마디아픔해소에 효과가 있

었다고 한다.

암예방과 강보호에 좋은 해삼단백영양제

해삼단백영양제는 꽃가루, 왕벌젖을 비롯한 꿀벌산물과 동물성 및 식물성단백질로 만든 천연건강식품이다.

항암, 항균, 항혈전효과가 높기로 이름난 조선훈삼과 동물성 및 식물성단백질, 꿀의 영양학적성분을 추출하여 사람들의 소화흡수에 알맞게 분리 정제한 해삼단백 영양제는 항암효과 높고 강보호에 아주 좋다고 한다.



본사기자

일찍부터 우리 선조들은 자연과학의 기초라고 할수 있는 수학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유산들을 남겨왔는데 그가운데서도 최석정(1646-1715)의 《구수략》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수학에 남다른 조예를 가지고있던 최석정은 국내외도서들을 널리 참고하면서 당시 수학발전에서 천문력서편찬 등에만 치중하며 자체의 리론적연구를 홀시하던 부족점을 포착하고 수학을 리론적으로 체계화하려고 노력하던 과정에 1688년부터 1695년까지 4개편으로 된 《구수략》을 저술하여 내놓았다.

책의 첫번째 편에는 수의 기원, 10진법의 내용, 4칙산법과 구구표, 거울셈법의 개

념, 분수와 그 계산, 편제법 등이 서술되어있다.

두번째 편에는 1원2차방정식의 풀이로 귀착되는 문제들, 직3각형의 상사를 리용한 간접측량의 문제들이 상세히 서술되어있다.

그리고 세번째 편에는 등차합렬 및 등비합렬의 일반공식과 합의 공식 그밖의 여러가지 합렬의 합의 공식 등이 서술되어있으며 부록으로 된 네번째 편에는 필산하는 방법, 수판에 의한 계산법, 3차-10차까지의 방정식 풀이법이 서술되어 있다.

《구수략》은 당시 우리 민족의 높은 수학발전수준을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가치있는 유산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본사기자

국가비밀물질분화유산으로 등록된 자라료리는 예로부터 건강에 좋은 보양제음식으로 이름이났다.

자라고기에는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 비타민과 같은 여러가지 필수영양성분들이 충분히 들어있어

건강과 고혈압을 비롯한 병치료에 특효가 있다. 자라피와 갑, 뼈는 고령약

으로 널리 리용되고있다. 자라피는 당뇨병치료에 특효가 있는데 자라피를 마시기 시작하여 2일후부터는 치료효과가 뚜렷이 알려져 3개

월이 지나면 혈당값이 정상수치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자라피는 이름난 강장보혈제로서 허약한 어린이들에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영양분이 풍부하며 고기맛 또한 좋아 자라는

오래전부터 훌륭한 고급로리를 만드는데 리용되어왔다.

평양의 옥류관 로리전문식당에서 자라로 자라피, 자라탕, 자라찜, 자라죽 등 여러가지 로리를 만들어 인민들에게 봉사하고있다.

본사기자



류씨의 품행

옛날 생각이 깊고 마음이 어지기로 소문난 류씨네인의 집에 손님들이 찾아왔다.

류씨는 하녀더러 장마당에 나가 소고기 한근을 사오라고 하였다.

잠시후 하녀가 사온 소고기를 들여다본 류씨는 저도 모르게 머리를 긁적거렸다.

고기의 색이 너무 어둡고 약간의 색은 냄새가 나는것으로 보아 변질된 소고기였다.

류씨는 하녀에게 금방 갓된 푸주간에 아직 팔지 못한 소고기가 얼마나 있는가를 묻더니 황급히 집안으로 들어가 장안에 깊숙이 간수해두었던 돈을 꺼내왔다.

급한 일이 있으면 쓰려고 오랜만에 장만해두었던 돈이었다. 류씨는 돈을 통째로 하녀에게 주면서 당장 푸주간에 돌려주라고 하였다.

류씨는 돈을 통째로 하녀에게 주면서 당장 푸주간에 돌려주라고 하였다. 하녀가 의아한 눈길로 류씨를 바라보았지만 류씨는 장다짐으로 푸주간에 보냈다.

얼마후 하녀는 심부름군과 함께 거의 한걸이나 되는 많은 소고기를 지게에 지고 들어왔다.

이것을 본 류씨는 그 고기를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뒤뜰 한구석에 구멍이를 깊게 파고 묻어버리라고 하였다.

《생각해보아라. 만일 다른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먹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고기를 사먹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고기가 변질되었기때문이다.》

《변질된 고기라는것을 처음에 아신것이 분명한데 그걸 알면서도 왜 많은 돈을 들여 변질된 고기를 사오라고 하셨습니까?》

《생각해보아라. 만일 다른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먹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고기를 사먹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고기가 변질되었기때문이다.》

《생각해보아라. 만일 다른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먹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고기를 사먹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고기가 변질되었기때문이다.》

《생각해보아라. 만일 다른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먹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고기를 사먹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고기가 변질되었기때문이다.》

《생각해보아라. 만일 다른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먹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고기를 사먹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고기가 변질되었기때문이다.》

《생각해보아라. 만일 다른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먹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고기를 사먹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고기가 변질되었기때문이다.》

본사기자

금강산과 김삿갓 (2)

글 박종철, 그림 채대성

이렇게 스님이 연방 불러대어도 삿갓이 거침없이 대답을 하는데 그것이 앞뒤가 꼭 맞을뿐 아니라 그 뜻이 하도 깊어 신기할 정도였다. 마침내 스님은 더 내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마지막구를 때었는데 삿갓이 제격 그 뜻을 알아차리고 깔을 땀었다. 그 마지막이 다음과 같다.

스님: 달이 희고 눈이 희니 천지가 다 희고
삿갓: 산이 깊고 물이 깊으니 나그네수심도 깊다

스님은 여기서 더 감동이 되어 마침내 삿갓이 글재주가 비상한 사람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이 사찰에서 오래 동안 지내면서 시를 짓는다는 사람들을 모두 만나보고 한번도 재미를 보지 못하였는데 오늘 이렇게 우연히도 시의 신선을 만난셈이구려. 돌이켜보면 이 또한 신령스러운 산의 조화가 아닌가 하오이다.》 스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이렇게 말하니 삿갓은 《오래간만에 금강산에 와보

니 기이한 자연경치속에 사람과 신선의 조화가 함께 어울린듯하오이다. 내가 지금껏 금강산을 위하여 시를 짓지 않고 아껴왔는데 직접 여기에 이르러보니 어쩐지 감히 입을 빌려 시라고 부르기가 조차 부끄럽구려.》라고 대답하였다.

그때부터 두사람은 좋은 시 벗이 되었는데 삿갓은 금강산에 갈 때마다 그 스님과 함께 지내면서 산도 구경하고 시도 같이 지었다 한다.

금강산에 대한 삿갓의 시는 이외에도 전해오는것이 적지 않다.

그러나 삿갓이 일정한 생활거처가 없고 어느 한곳에 특별히 적어둔데가 없으나 지금까지 남아있는것이 많지 못하며 지어는 그가 떠오르는 감흥을 참지 못하여 나무잎이나 나무껍질 같은데 써서 흐르는 물에 떠내려보낸것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아래에 그가 금강산에서 지은 시들을 몇수 더 소개한다. 이 시는 그가 구룡연계곡에서 지은것이다.

금강산으로 들어가며

푸른 길 구름속으로 들어가니 루마다 시인의 걸음 멈추도다

날아내리는 눈같은 폭포는 룡의 조화요

솟아오른 메부리는 창경의 기상이라

나무우의 선학은 몇천년을 묵었으며

물가의 푸른 숲은 몇백년을 자랑하고

이내 몸 봄기운에 몹시 피곤 하진만

승려는 사려없이 요란히 종을 울리누나

또 만물상으로 오르면서는 바위우에 떨어질듯 올라앉은 기묘묘한 바위를 보고

위태롭다 저 바위우의 돌 떨어지려고 한지 몇천년이노

라고 노래하였다.

외금강구역을 돌아본 삿갓은 그 일대의 특이한 자연의 생김새에 대하여 놀랄만치 정확한 묘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노래하였다.

큰 산이 뒤에 가리었으니 북녘하늘이 끊어져 없어졌고

여기서 삿갓은 금강산에 몰

고 한다.

여기서 삿갓은 금강산에 몰

고 한다.

고 한다.

만동독포안에서 그는 《금강산》이란 시를 쓴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물만 있고 돌이 없으면 물이 빛이 안나고

돌만 있고 물이 없으면 돌이 기이치 못하리

이 땅에는 물이 있고 곁하여 돌도 있어

하늘은 조화를 짓고 나는 시를 짓노라

여기서 삿갓은 금강산에 몰

고 한다.

여기서 삿갓은 금강산에 몰

고 한다.

고 한다.



대해가 앞에 펼쳐졌으니 땅은 동쪽으로 여기서 끝났도다

과 바위가 한데 어울리고 풍치로서 모든것이 다 갖추어진 자연의 조화로우이 있어 자기도 함께 즐긴다는 기쁨을 보여주었다.